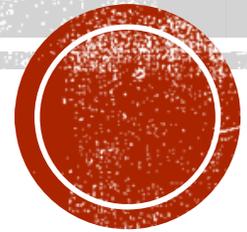


보건의료, 페미니즘을 만나다
- 코로나 격리병동의 진료경험을 중심으로

2021년 8월 28일

인의협 공동대표 이보라





Anyone Can Be a Feminist: A Guide to Feminism for Everyone

<https://www.thequint.com/neon/gender/a-guide-to-feminism-for-men-everyone-anyone-can-be-a-feminist>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가부장제의 형식과 편견, 규율을
깨닫고(인식)

변화를 만들어 내자고 주장(설득)
자신의 삶과 주변부터 그렇게 바
꾸는 것(실천)

그것을 깨자고 제안하며 넘어설
수 있다는 대안제시

보건의료인의 입장에서 페미니스
트로 산다는 것?



< 現 국립중앙의료원과 '극동 공병단' 부지 항공 촬영 사진 >



코로나 격리치료 병동

2020년 12월 수도권 3차 대유행

당시 계획, 확진자 최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병동을 만들고 있는데

인의협에서 의사를 파견해 줄 수 있는지....

일단 병동을 오픈할 수 있게 기간은 2월말 까지 파견 요청





코로나 격리치료 병동

2020년 12월 수도권 3차 대유행

당시 계획, 확진자 최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병동을 만들고 있는데

인의협에서 의사를 파견해 줄 수 있는지....

일단 병동을 오픈할 수 있게 기간은 2월말 까지 파견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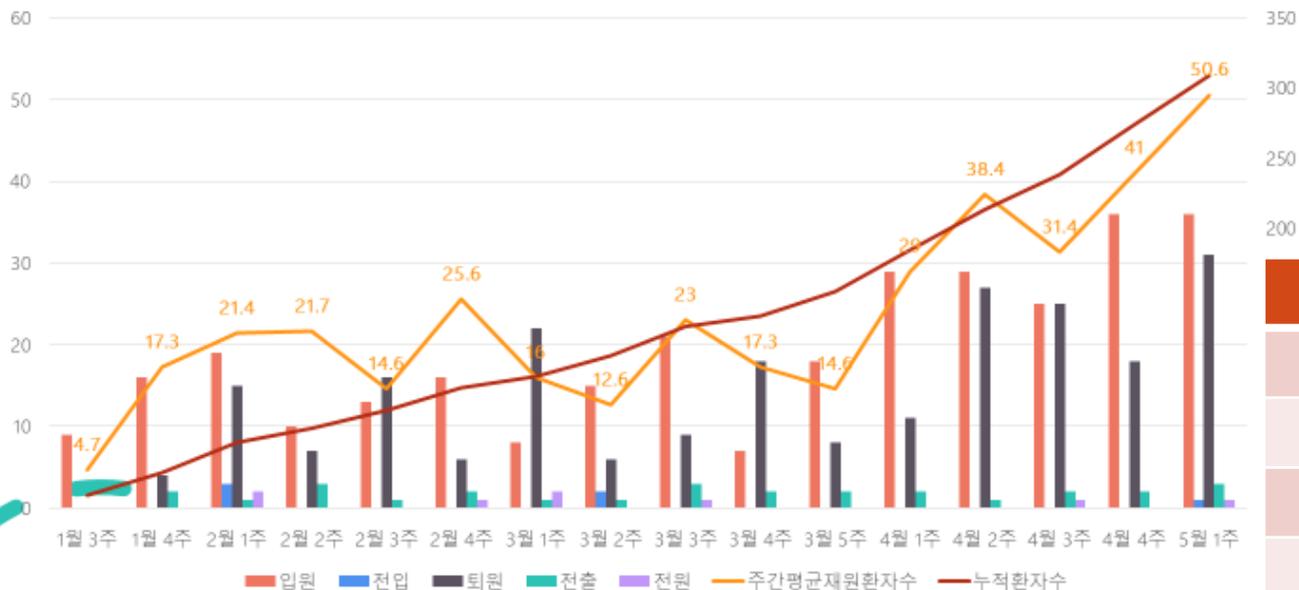
개인적으로 연락하기도 하고 전체공지를 통해 회원 16명이 모임.

이중 4명이 남자의사, 12명이 여자의사.

4명 총원(여3, 남1)



FED병동 환자현황 (1월3주~5월1주)



4월 2째주부터 입원 환자수 30명을 넘음.
 5월 4일 신환 10명(최고), 5월 5일에 입원 환자수 56명(최고)
 4.14 X-ray 들어옴.
 4.12 산책 가능

격리병동에서 남녀 환자의 행동차이

- **식사에 대한 불만**
 - **맛없는 병원밥, 미각후각 소실**
 - 이런 걸 밥이라고 주는 건가요?
 - 입맛이 없네요. 초고추장을 줄 수 있나요?

연령대	환자 수
<1세	1
1-6세	4
7-12세	8
13-18세	7
19-29세	20
30-39세	37
40-49세	38
50-59세	49
60-69세	99
70-79세	36
80-89세	16
총 수	315

- **가족입원**
 - 소아와 동반입원하는 보호자는 거의 대부분 엄마
 - 부부와 자녀 입원시 침대배치
 - 엄마가 제일 악화되어 중환자실 전동
 - 감염병이지만 모계전염..**
 - 어린이-엄마-외가**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자영업자는 도산하고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고립, 고통이 가중된다고 하는데...

성별의 관점에서 보면 여성에게 고통과 책임이 더 전가되고 당연시되고 심지어는 폄하됨.
이것이 곧 여성혐오(미소지니)

Across the country, women are leaving the paid job market in record numbers. Eleni Kalorkoti / for MSNBC

<https://www.msnbc.com/opinion/we-re-just-beginning-understand-extent-covid-19-s-feminist-n1243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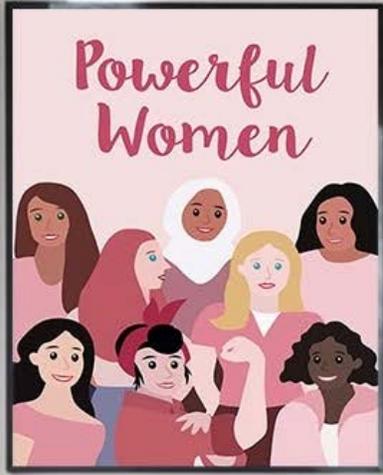
코로나 시대의 여성

불안정한 일자리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

여자의사들도 평소 불안정한 일자리를 선호할 수밖에 없었고 코로나 시기 호출에 응함. 전문직이 아닌 여자들은 코로나시기에 해고

돌봄의 사회화는 요원, 돌봄의 여성화





환자와 대면하는 우리의 진료실, 병실, 약국이 페미니스트의 방이 되도록

보건의료인의 전문성을 페미니즘
의 무기로 활용

보건의료인에게 페미니즘은 선택
이 아니라 필수덕목



gettyimages®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